

‘2030년 고령인구 10만 달성’ 속도낸다

군, 민선 8기 추진 SOC·전략산업 등 85건 집중 점검 공영민 군수 “군정 역량집중...모두 잘사는 고흥 구축”

고흥군이 오는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 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군정 팔영 산출에서 올해 첫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공영민 군수 주재로 양국진 부군수를 비롯한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민선 8기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85건의 중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우주·드론·스마트팜’이라는 3대 미래 전략 산업과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우주선 철도, 고흥읍~봉래간 4차선 확장 등 3대 교통 기

반 시설을 양대 축으로 삼았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조성,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고흥 우주선 철도(별교역~고흥역~녹동역) 구축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와 함께 고흥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목표로 고흥 해양 예술랜드 관광단지, 대종골프장 조성과 권역별 관광 시설 구축과 함께 고흥문화재단 설립, 고흥 분청사

기 기반 특화상품 개발, 2027년 전남도체 육대회 개최 등 문화·예술·체육 분야도 논의됐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대안 마련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금까지 고흥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1400여 공직자들과 함께 힘들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남은 민선 8기에는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의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고, 모든 군정 역량을 모아 군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고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들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매월 전 부서장이 참여하는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현장과 시설을 점검하는 ‘찾아가는 현장 간부회의’도 운영하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광양, 주말농장 참가자 모집
총 150구획...내달 5일까지

광양시는 도심 속에서 농업을 체험하며 가족과 함께 건강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2026년 도시민 주말농장’ 참가자를 3월 5일까지 모집한다. 도시민 주말농장은 시민이 일직 구획의 텃밭을 분양받아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체험형 농업 프로그램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운영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인 시민이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올해는 일반텃밭 90구획, 은퇴자텃밭 20구획, 다자녀가정 텃밭 20구획, 다문화가정 텃밭 20구획 등 총 150구획을 운영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 서류 검토를 통한 시민에 대해 개인별 직접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말농장은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및 비료 사용, 경운, 구획 정리 등 텃밭 기반을 사전에 조성한다. 선정된 참가자는 모종과 종자, 소형 농기구 등을 직접 준비해 자율적으로 텃밭을 가꾸게 된다. 도시민 주말농장 신청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방문, ‘MY광양’ 앱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체험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주말농장을 가꾸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족의 건강까지 챙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

순천, 콘텐츠기업 투자유치 나선다

오늘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서 설명회

순천시는 26일 오후 2시 순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콘텐츠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순천으로 이전한 콘텐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이후 이전 의향 기업을 대상으로 원도심 클러스터 투어도 이뤄진다. 사전에 모집된 원도심 공실 35개동, 63실이 투자 대상이다. 투어를 통해 입주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공간과 기업 간 매칭을 통해 사무공간을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콘텐츠정책과 콘텐츠정책팀(061-749-6551~6554) 유선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프로젝트 개발 및 투자, 채용 등 산업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플랜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콘텐츠 분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남해안권 콘텐츠 허브를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원도심 클러스터에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분야별 콘텐츠 지원 정책을 비롯해 980억원 규모로 결성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운용방향 등을 설명한다.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 고용과 정주, 콘텐츠 제작비, B2C·B2B 종합 콘텐츠 축적 등 전반에 걸친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계획에 따라 IP와 신기술, 2가지 분야로 나눠 운용사와 기업 간 1대1 투자 상담도 진행된다.



장성향교 추기석전대제에 참여한 김한중 군수(왼쪽).

사진제공=장성군

장성, 16개 문화예술단체 지원 ‘박차’ 올해 40개 사업 6억3678만원 규모

장성군은 올해 지역 16개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6억3678만원 규모 40개 사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군의 지원은 전통문화 계승,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군민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확대, 다양한 주민을 아우르는 문화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지역 정체성을 살린 전통문화 사업과 생활 밀착형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배치해 문화·예술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게 스며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성문화원은 지역문화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문향축전과 민속놀이 한마당 등을 운영하고, 역사문화자원 발굴사업을 추진해 지역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데 힘쓴다. 장성음악협회는 지역축제 기간 열린 음악회를 선보여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밖에 매년전통예술보존회 전국곡악경연대회, 국악협회 국악연수사업, 국

악제 참가 지원, 장성문인·미술협회 전시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순·추향제와 백일장, 동학농민기념사업회 기념행사, 인성문화진흥원 인성문화교실 운영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문화의 깊이를 더한다. 또 지역 내 유일한 미술관인 아인미술관 운영 지원을 통해 예술 기반 확충과 지역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참여형 문화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여수공항, 항공교통량 증가세 유지

지난해 1만4302대 기록...전년 대비 1.3% ↑

전국 공항의 국내선 항공교통량이 감소한 가운데 여수공항은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항공교통량 집계’에 따르면 전국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 1000만대를 돌파하며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국제선은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국내선은 1.6% 감소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교통량이 빠르게 회복·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수공항은 정책적·시설적 한계로 인해 국제선 취항이 불가능해 수요 증가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수시는 글로벌 항공 수요의 증가기 성장 흐름에 대응하고자 현행 2100m 활주로를 3200m로 확충하고 국제공항으로의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전남도 등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내 항공시장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수공항이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며 “앞으로도 국내선 안정화와 국제공항 승격을 추진해 남해안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여수공항은 지난해 총 1만4302대, 일 평균 39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국내선 중심의 공항임에도 전국적인 감소 추세와 달리 성장세를 이어가며 지역 거점공항으로서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가 취항해 김포·제주 2개 국내선 노선을 운항 중이다.

구례,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

내달 13일까지...지역사회개발·복지·안정 등 3개 부문

구례군은 올해 ‘군민의 상’ 선발을 위해 수상 후보자 추천을 3월 13일까지 받는다. 접수 부문은 ‘지역사회개발’, ‘복지·안정’, ‘교육·문화·체육’ 등 3개 부문이다. 군은 부문별로 공적이 현저한 후보자 1명씩을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자 추천은 군의회이장, 기관·단체장, 읍·면장이 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자는 구례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상은

‘군민의 날’에 진행할 예정이다. 추천서 양식은 읍·면에서 교부받거나 구례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추천권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구례군청 총무과(061-780-2235)로 제출하면 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향상에 공헌하고, 타인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군민이 추천돼 뜻깊은 군민의 상을 수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곡성, 특산물 활용 ‘토란하트떡’ 출시

농산물 소비 촉진·경쟁력 확보 기대

곡성군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토란을 활용해 곡성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개발 생산한 ‘맛다곡성 토란하트떡’을 출시했다. 맛다곡성 토란하트떡은 곡성에서 재배된 토란을 첨가해 쫄깃한 식감과 달콤한 풍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천연재료로 색을 낸 핫모양과 디자인으로 시각적인 매력까지 갖추면서 선물용·담배품용 디지털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제품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곡성 토란은 전국적으로도 품질이 우수한 특산물로 알려져 있으며, 칼륨과 칼슘 등 무기질과 필수아미노산, 식이 섬유가 풍부하고 유산 등 기능성 물질을 함유해 혈압조절과 항당뇨, 면역력 증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동안 토란은 주로 원물 형태로 유통돼 조리법이 한정적이었으며 유의 아린맛으로 인해 가공식품 개발과 소비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곡성군농업기술센터는 전남농업기술원의 아린맛 저감을 위한 토란 가공기술을 활용해 지역업체인 푸드파와 파업체와 협업해 ‘맛다곡성 토란하트떡’을 개발·생산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열린 국제농업박람회에서도 소비자 시식 홍보 행사를 통해 선보였으며,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에서 생산된 토란과 쌀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번 제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곡성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생산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중심으로 토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기술 개발과 교육, 시범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토란을 활용한 간편·편의형 가공식품 상품화와 지역 축제·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홍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곡성=김유빈 기자 hnews1@

장흥인재육성장학회 내달 6일까지 장학생 접수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2026년도 장학생 및 특별경력 장학생 선발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모집에 나선다. 올해 장학생 지원 규모는 총 2억3000만원으로, 대학생과 고등학교 진학 학생, 저소득층 학생은 물론 각종 대회 입상자와 체육특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 분야는 대학교 신입생·재학생, 문주장학생, 고등학교 신입생, 저소득 고등학생, 특별경력 장학생 등이다. 학업 성적과 학교 졸업 여부, 다자녀·저소득 가구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할 방침이다. 장학금 신청 기간은 3월 6일까지이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최종 선발 결과는 4월 중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관계자는 “이번 장학 지원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꿈에 전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흥의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장학기금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다시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